

‘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 보호 인증위원회’ 발족식 개최



2016년 10월 개소한 ‘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 보호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써 ‘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 보호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가 신설되어 지난 8월 17일(목)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서울에서 방송사 및 학계·저작권보호단체·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개최하고, 공식 역할 수행에 들어갔다.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는 지상파 UHD 방송의 무분별한 유통과 불법 복제에 의한 콘텐츠 시장의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인증센터를 개소했으며, 인증센터는 디지털의 콘텐츠 보호관련 기술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 가전사와 상호 유기적 관계를 통해 운영되어 시험 인증, 인증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담당한다. 인증센터가 구축된 후, 지상파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UHDTV 등 수신단말기 및 방송사에서 UHD 방송을 제작·송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니터링 장비 등이 콘텐츠 보호 기능 적용에 대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신설된 인증위원회는 인증센터의 상위 기관으로서 앞으로 지상파 UHD 방송에 적용되는 콘텐츠 보호 기능의 확대, 문제점 해결 방안 및 인증센터 운영 관련 중요 사항 등에 대해 전체적인 감시를 비롯해 심의·의결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인증위원회는 정화섭 KBS UHD 추진단장, 이성근 MBC 제작기술국장, 류기형 SBS 기술국장, 김영태 RAPA 인증센터장,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정석철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장으로 모두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정화섭 KBS UHD 추진단장으로 결정됐다. 이날 인증위원회 발족식에서는 콘텐츠 보호 기능상의 오류 또는 불법 다운로드 및 복제로 인한 콘텐츠 유출 등 ‘UHD 방송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 및 ‘인증센터 운영 규정’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인증센터장의 위기 대응 매뉴얼 보고 후에는 이에 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언급되었고, 추가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인증위원회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와 시청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 개최

지난 5월 31일, 지상파 UHD 방송이 시작되고, 100일 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UHD 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가 많은 가운데, 부족한 시청권 확보와 이에 대한 법과 정책 및 제반사항을 알아보는 토론회가 8월 김성수, 김경진, 추혜선 국회의원의 주최와 미래방송연구회의 주관으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지상파 UHD 서비스의 제기능 구현을 위한 법정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와 함께 직접수신율 제고, 콘텐츠 활성화와 방송광고제도, 입법형식과 내용관련 쟁점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또한, “텔레비전 수상기 제조업체에 대해서 디지털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야 된다는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해 TV의 안테나 내장을 통한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 서비스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밖에도 토론회에서는 지상파 UHD방송 전환 특별법의 제정 및 발의의 필요성과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낮추고 중간광고 금지 같은 광고규제를 푸는 등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상파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형민 MBC UHD 전환전략부 부장은 “UHD 방송은 지상파 방송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내 방송시장 전반에 걸친 중요한 문제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현재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으며, 가전사는 이익에만 집중하지 말고, 시청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로 사무국장은 “가전사는 UHD TV로 판매매출을 올린만큼 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한, “UHD 방송의 경우 디지털 전환과는 달리 지상파 방송사에서 먼저 하겠다고 했으며, UHD 방송 도입에 따른 문제제기 역시 이미 거론되었다.”면서 “정부와 지상파 방송사, 가전사 모두 이러한 상황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충분하고, 면밀한 수신환경에 대한 이해도 없이 UHD TV가 판매되었다는 점에 대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청자의 눈에 맞는 정책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지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과 과장은 “직수율에 대해 지상파와 가전사 모두 의무가 있고, 부족한 전파환경을 극복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시청자를 위한 관련 사항의 홍보 강화” 등을 약속했다. 